

기상사랑

2

2015. February

www.kma.go.kr Vol. 404

정책 클로즈업

2015년 달라지는 기상정책은?

기자가 간다

도로와 함께, 날씨와 함께 365일!

해외동향

세계은행, 21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0' 목표 지지

열린마당

동화 같았던 가평 여행기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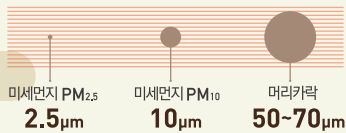
기상사랑

기상청

우리 가족 건강 지키는 미세먼지 바로 알기

미세먼지란?

미세먼지의 상대적 크기 비교



- ❖ 장기간 흡입 시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발률 · 조기사망을 증가에 영향
- ❖ 어린이 · 노인 ·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영향이 클 수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 **눈**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 👂 **코** 알레르기성 비염
- 👃 **기관지**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 👄 **2.5µm** 미만 미세먼지는 폐 속 깊숙히 침투해 폐포에 흡착하여 폐포를 손상시킨다

대기질 예보 등급 · 미세먼지 정보 확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생활수칙

미세먼지가 높은 날 건강 생활 수칙 미세먼지예보 등급상 나쁨(81µg/m³) 이상인 경우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외출시
항시마스크 착용



외출 후 손, 얼굴
깨끗이 씻기



충분한
수분섭취



과일, 채소 등
충분히 씻어 먹기



하늘사랑

2015 February Vol. 404

2015년 2월호(통권 404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58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일자 2015년 2월 10일 발행처 기상청 발행인 고윤화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편집장 전준모 편집기획 대변인실 노성운
도진아 조아라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MA Special Issue

정책 클로즈업

2015년 달라지는 기상정책은? · 02
도로 안전 국민 행복! 날씨 위험 교통지도 서비스 · 04

기자가 간다

도로와 함께, 날씨와 함께 365일! · 06

해외동향

세계은행, 21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0' 목표 지지 · 08
유럽의 우주날씨를 예측하는 "FLARECAST" 시작 · 08

이달의 기상인

대구 · 경북지역의 날씨 지킴이, 대구기상대 · 09



KMA 날씨 +

날씨 + 건강 겨울철 심혈관질환 관리 · 22
날씨 + 24절기 우수(雨水) · 23
날씨 + Story 해류를 타고 온 겨울꽃 수선화! · 24
날씨 + Cartoon 좋은건 나눠요 · 26



Report

월간 기상정보 · 28
기록으로 보는 KMA · 29
포토 브리핑 · 30
독자 마당 · 32



About

열린마당

세계 태풍인들과의 강렬한 만남 · 10
새(新) 동지에서의 지저림 · 12
3D 프린터와 함께 무한상상 도전! · 14
여기는 신바람 나는 속초! · 16
특별한 인연의 섬, 제주도 · 18
동화 같았던 가평 여행기 · 20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 February



07



16



24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ri.or.kr

2015년

달라지는 기상정책은?

2015년 업무계획 발표



1월 29일 고윤화 기상청장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기후빅데이터, 기상사업자와 함께하는 기상서비스'라는 정책목표 아래, 2015년 달라지는 기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기상청은 올해 ▲신속·정확한 기상예보서비스 구현 ▲기상기후정보의 경제적 가치 창출 ▲기상산업 육성 등 7개 전략을 중심으로 15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생활 접점의 기상서비스를 확대하며, 기상기후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고윤화 기상청장은 "올해도 국민생활 중심의 기상정책을 펼치고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 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기상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기상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달라지는 기상서비스

	2014년	⇒	2015년
지진 조기경보	지진속보·통보 (속보 120초/통보 180초 이내)	⇒	지진조기경보서비스(1.22) (조기경보 50초 이내)
예보기간 연장	시범	⇒	정규(3월) [초단기(3→4h), 단기(내일→모레)]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수도권	⇒	전국(6월)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 42과제 발굴(기상기후 빅데이터 포럼) · 농축산업, 관광, 전력분야 등 융합서비스 개발	⇒	· 에너지, 방재, 수산, 유통 등 융합서비스 개발 · 기상기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단계적 개방(11월)
안개특보 서비스	-	⇒	수도권 시범(12월)
기상자료 제공 창구	분야별 관리·제공	⇒	일원화(data.kma.go.kr)(12월)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신설

국민생활과 가까운 고품질 기상기후 서비스 실현!

2015년 기상청,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책 1

더 빠르고 더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한 노력



- 수도권형 신설 등 예보광역화를 통한 예보서비스 질 향상
- 예보관 역량의 지속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 시정악화가능성(연무포탄설)예보 전국 확대 및 수도권 대상 안개특보 시범운영
- 첨단 입체 기상관측망 구축 등을 통한 위험기상 감시 강화

위험기상에서 안전한 사회!

정책 2

기상기후정보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노력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신설
- 기상자료 재공정구 일원화
-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및 단계적 개방
- 빅데이터 융합 시범서비스 추진

기상기후 빅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창출!

정책 3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 '날씨경영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
- 기상청 날씨앱(App) 서비스 폐지 등 민관 역할 분담 강화
- 기상청 기상기술 민간이전 절차 간소화
- 기상관측 핵심센서 등 기상장비 국산화율 향상
- 기상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 확대

기상기업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 4

더 안전한 우리나라, 우리 미래를 위한 노력



-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시행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50초 이내 대국민 동보)
- 하천 유역별 갈수예측정보 개발·제공
- 1, 3개월 단위 가물전망 정보 서비스
-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내 주도적 역할 강화 (IPCC 차기 의장 진출 추진)

선진 기상국가로 우뚝!





도로 안전 국민 행복! 날씨 위험 교통지도 서비스

2014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 금상 수상

안동기상대



'도로안전 국민행복! 날씨 위험 교통지도 서비스'란?

실시간 고속도로 영상(CCTV)과 고속도로 주변 관측정보를 활용하여 기상 변화(눈, 비, 도로결빙, 안개 등)에 따른 도로 상황을 지도 형태로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날씨정보 서비스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다. 가까우나 머나 고향에 모여 가족들이 정을 나누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명절기간 피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으니 바로 교통정체다. 2010년 설에는 폭설까지 내려 눈과 빙판으로 귀성길 혼잡이 더했었다. 해마다 명절을 보내기 위해 2,000~3,000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하니, 이번 설에도 대이동에 따른 교통정체가 예상된다.

그러나 극심한 교통정체와 도로를 통한 이동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의 도로안전 수준은 OECD 32개국 중 30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운송 수단별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선박의 41배, 항공기의 5,600배에 이르고, 부상사고는 선박의 12,880배, 항공기의 36,490배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 2012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중 약 12.5%가 날씨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고속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날씨 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안동기상대에서는 “위험한 날씨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 작은 발상은 '도로 안전 국민행복! 날씨 위험 교통지도 서비스'를 제안하게 되었고, 이 제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금상(1등)을 수상하였다.



‘도로 안전 국민 행복! 날씨 위험 교통지도 서비스’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날씨 위험상황을 지도 위에 색신호등 형태의 선으로 표시하여 제공한다. 주요 지점에 대한 영상자료를 제공해 주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도로 위의 ‘경로 검색’ 기능을 통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다양한 경로의 고속도로(도로) 중 날씨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고속도로(도로)를 지정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어떤 날씨 요소가 어느 정도 위험으로 예상되는지를 알려주는 ‘날씨 요소별 알람 서비스’와 돌발 위험 날씨 현상을 제보할 수 있는 ‘날씨 제보’ 위험기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상습 다발지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날씨 위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위험기상에 대한 발표기준 및 요소 또한 계절 특성에 맞게 봄·가을의 경우에는 안개, 여름철에는 강수, 겨울철에는 적설 및 결빙 중심으로 상세히 제공하여 고속도로(도로)를 이용하는 수요자에게 맞춤형 날씨 정보 지원이 가능하다.

기상청에서는 제안된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도로 경로별 날씨 위험정보 생산 연구를 2015년도에 착수하여 2017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목적으로 영동고속도로에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로 안전 국민 행복! 날씨 위험 교통지도 서비스’는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도로 위의 안전장치”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새로운 개념의 “날씨 정보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와 함께, 날씨와 함께 365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우리나라 운전자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42km, 하루 평균 주행시간은 100분이라고 한다. 매일 도로 위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명절이 시작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끝없이 밀리는 차량 행렬로 장시간을 차 속에서 보내게 되고, 설상가상 날씨가 좋지 않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도로교통과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휴와 명절을 잇고 국민들의 안전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를 찾아 그들의 생생한 현장 속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폭설에도 끄떡없는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설치, 관리, 도로정비, 교통편의, 공공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도로가 항상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며 고속도로 노선을 따라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빠른 정보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충청권까지 포함해 8개의 지사로 나뉘는데, 특히 강원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 겨울철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하다. 작년 강릉과 대관령을 중심으로 9일 동안 최심적설 110cm를 기록하며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폭설과 대설이 잦은 지역이다. 그래서 강원본부는 지사별로 다른 지역보다 많은 15~20대의 제설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황실을 운영하여 하루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폭설에 관해서는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도로교통의 큰 변화를 가져온 '37시간 고립사건'

2004년 겨울, 경부고속도로에 내린 폭설로 운전자들이 37시간동안 고립되었던 최악의 사건이 있었다. 당시 큰 이슈가 되었던 이 사건은 이후 도로교통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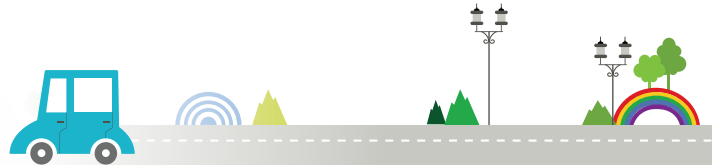
“충청도 폭설 사건 이후로, 대응체계와 인식 자체가 크게 변했습니다. 공사 내에서 '도로 차단'을 기피하였으나, 사건 이후 경찰청과 협업하여 위험 상황 시 전면통제를 시행합니다.”

소극적인 대응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도로순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뀐 것이다. 또한, 기상상황은 도로교통 안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예비 특보라도 발령되면 전 직원에게 문자로 전달하는 등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기상재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얼마 전 강원도 횡성군 인근의 중앙고속도로에서 43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사고였지만, 눈 예보에 따라 미리 제설작업을 해 두고 대비한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2시간 만에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원본부 직원들의 노력이 빛어낸 결과다.

명절도 대기! 주말도 대기! 직원들의 애환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가장 고된 일은 아무래도 기상재해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라고 한다. 취재 결과 강원본부의 직원들은 강원도 지방의 계절별 기상특성을 훤히 꿰뚫고 있을 정도로 기상 지식이 상당했다. 그리고 실시간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폭설, 태풍, 가뭄 등의 자연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밤과 낮이 따로 없이 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될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특히 명절



이나 연휴가 되면 늘어나는 교통량에 더욱 긴장하게 된다고 한다.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그때부터 해제될 때까지 대기의 연속입니다. 시간 단위로 확인하여 특별근무를 서기도 합니다. 눈이 내릴 시간에 맞춰 그 지역에 가서 미리 대비를 하므로 기상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귀향길에 분주한 명절이 되어도 미리 짜여진 근무조로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항상 대비하고 있어 뜻하지 않게 눈칫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환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과속은 절대 금물! 안전 운행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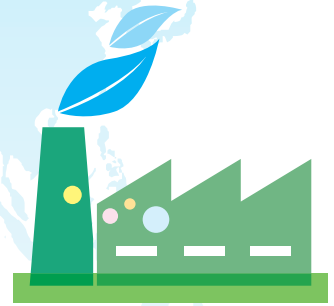


오는 18일부터는 민족의 명절, 설 연휴이다. 강원본부 민정기 과속은 설을 맞아 도로교통과 안전을 위한 몇 가지 당부를 잊지 않았다. “절대 과속은 금물입니다! 아무리 제설작업을 잘해도 평소보다 미끄럽고 사고의 위험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과속으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교통 통제 시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직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은 폭설이 예보되면 눈이 내리기를 기다려 재빠르게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눈이 쌓이면 제설작업을 통해 도로를 정비한다. 또한, 상황실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지역과 막히는 구간을 신속하게 알려줘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다. 오늘도 도로 위 수많은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명절과 휴일도 잊은 강원본부의 하루는 분주하게 지나고 있다. ❄️



세계은행, 21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0' 목표 지지



지난 12월 세계은행에서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210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0'으로 만들자"는 목표에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에 전하는 각성과 촉구 메시지이자, 세계은행이 자체 에너지의 중심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옮기면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독일의 기후학자 말트 마인스하우젠(Malte Meinshausen) 박사는 "과학적으로 봐도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제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시점이 언젠가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며 세계은행의 발표를 지지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전 세계 모든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 시 비용을 내도록 조치하고, 시장과 산업계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에 적극 투자할 것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세계은행에서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국가 상황에 적합한 정책의 개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김총재는 지난 2009년 G20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보조금 중단계획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화석연료에서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이에 덧붙여 세계은행은 각국 정부가 아직 국가발전과 같은 큰 과제에 직면해 있고 온실가스 배출 최고 년도(Peak year) 도달 시점 또한 상이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보이는 국가에 대해서는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앞으로 기후변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세계은행과 맞물려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출처 : REUTERS

유럽의 우주날씨를 예측하는 "FLARECAST" 시작



태양폭풍과 그 영향을 받는 요소들

지난 1월 중순, 아일랜드 트리니티(Trinity)대학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부터 250만 유로(약 31억 원)의 지원을 받아 태양 활동영역 및 플레어에 대한 예보시스템을 구축하는 "FLARECAST(Flare Likelihood and Region Eruption Forecasting)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아일랜드를 포함한 그리스,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영국이 참여하여 진행된다고 발표하였다.

이 FLARECAST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그리스의 유명한 물리학자 마놀리 조고리스(Manolis K. Georgoulis) 박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의 태양물리학자와 우주기상 예보관들에게 태양으로부터 순간적인 복사(radiation) 또는 고온의 가스가 거대한 분출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구에 영향을 미칠 때 위성 전자부품, 전파통신 및 항법체계 교란 그리고 전기 배전망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는 태양폭풍의 발생시기와 영향에 대해 자동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리니티 대학의 천체물리학자 손 블룸필드(Shaun Bloomfield)박사는 FALRECAST 프로젝트가 태양폭풍 및 흑점의 기원에 대한 성질분석과 전례가 없던 정밀도를 갖는 향상된 플레어 예보를 위해 사용하는 기초 태양물리, 인공지능 및 신경망, 그리고 최첨단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기술들을 모든 유럽인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프로젝트로 유럽의 우주날씨와 전례 없는 수준의 플레어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http://www.tcd.ie/>

대구·경북지역의 날씨 지킴이 대구기상대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의 일기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구기상대는 전국의 기상대 중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1907년 대구측후소로 개소하여 100여 년이 넘도록 대구와 경북지역 주민들에게 날씨를 알려주는 날씨 지킴이의 역할을 해왔던 대구기상대는, 2013년에 지금의 효목동에 신청사를 마련하여 이전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삼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각종 기상현상과 기후변화 등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날씨를 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기상특성화 과학관인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이하 기상과학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2013년 대구기상대와 인접한 효목동에서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첫 삽을 떠 지난해 11월 26일 개관하게 된 기상과학관은 현재 개관 2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3만 명을 기록하며 기상과학문화의 대중화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와 더불어 기상기후정보의 중요도가 증가하면서 특히 날씨에 민감한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기상현상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기상과학관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기상과학관은 벌써 언론 및 대외 홍보(IPTV광고 27만 회 노출), 지역특집방송 출연, 블로그 356건 포스팅,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20건 이상 보도되는 등 개관 후 활발한 행보로 기상과학을 전파하였으며, 지역 활성화는 물론 교육체험을 통한 효과적인 기상체험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기상과학관 설립과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적극적인 홍보 등 대구기상대 직원들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을 위한 직원들의 관심이 기상과학관이 대구지역의 관광명소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앞으로 대구기상대 직원들은 기상청 조직개편을 통해 영남권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대구기상청 승격을 추진하고, 예보 역량을 키워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달의 기상인 이란?

기상청에서는 2014년 3월부터 매달 '이달의 기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직원(부서) 중 기상업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직원(부서)을 매월 선발하여 포상하는 제도이다.

세계 태풍인들과의 강렬한 만남

제8회 태풍 국제워크숍

2014년 12월 1일, 제8회 태풍 국제워크숍 IWTC(International Workshop on Tropical Cyclones)가 시작되었다. 이 워크숍은 4년마다 세계기상기구에서 열대저기압 관련 현상을 연구하는 모든 전문가가 모여 서로의 연구결과를 교환하고, 문제점들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태풍 상륙과 관련된 IWTC-LP(Landfall Processes) 워크숍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총 10일의 일정이 잡혀있었다. 지금까지 참석해본 워크숍 중 가장 긴 10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신경쓰고 준비할 부분이 많았다. 그렇게 호기심과 걱정과 함께 IWTC가 시작되었다.



IWTC는 보통의 학회와는 사뭇 다른,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워크숍이었다. 4년 동안 세계의 여러 연구자 및 태풍 예보관들이 해년 태풍 연구와 경향에 대한 논평, 이에 대한 참가자들 간의 토론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다시 약 10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토론 시간을 가졌다. 토론 그룹의 분위기는 좌장 성향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었다. 구성원도 매번 무작위로 결정되었는데 우연히도 나는 홍콩의 예보관분과 계속 함께하는 기회를 가졌다. 많은 것이 미숙한 나를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어렵고 힘든 토론시간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김진연
국가태풍센터

순조롭게 진행되던 워크숍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바로 제22호 태풍 '하구핏'이 발생한 것이다. 워크숍 중간에 태풍 현황을 브리핑하는 시간이 추가되었다. 특히, 이 태풍은 매우 강하게 발달하면서 필리핀으로 향했기 때문에 필리핀 예보관들은 모두 도중에 돌아가야만 했다. 또한, 워크숍 기간 초기의 날씨도 비바람이 몰아치며 춥고 눈까지 내리는 등 평소의 제주도 날씨와는 사뭇 달랐다. 아름다운 제주의 경치를 자랑하고 싶었던 나는 아쉬움만 가득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은 태어나서 눈을 처음 봤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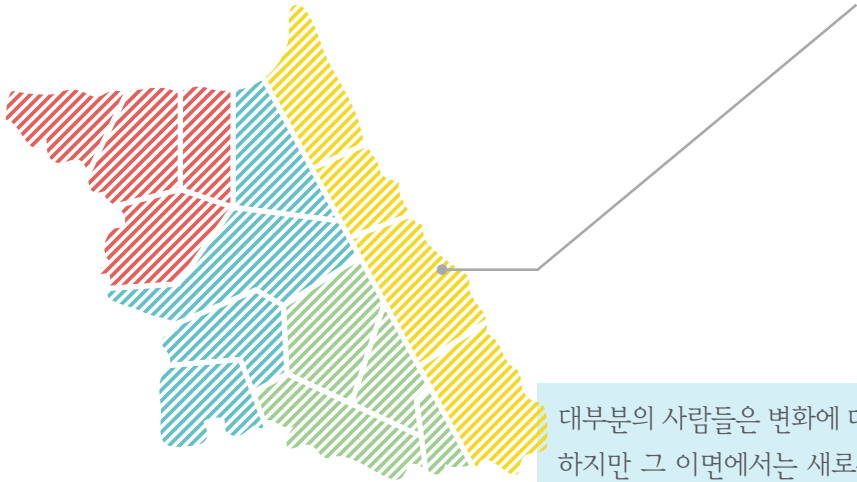
4일 차, 참가자들이 태풍센터를 방문했다. 센터 홀에 각 나라말로 ‘환영합니다’를 적은 현수막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놨더니 반응이 매우 좋아서, 준비한 보람을 느꼈다. 센터 소개 후 방문객들의 관심을 독차지한 것은 기상청 태풍 예보시스템인 TAPS(Typhoon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다. 당시 태풍 예보 중이셨던 김동진 예보관님도 덩달아 인기가 폭발하였다.

9일 차, 드디어 내가 맡은 포스터 발표시간이 돌아왔다. 태풍 예보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라 태풍 예보관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 온갖 몸짓을 동원해서 설명해야 했다. 다행히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부족한 내 설명을 이해해 주셨지만, 영어를 좀 더 잘했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었다.

어느새 열흘간의 행사가 막을 내리고 참석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이번 태풍 워크숍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지만, 사실 내게 가장 뜻 깊었던 것은 이 IWC 자체였다. 딱딱한 발표만이 아니라 발표 도중에도 토론이 있고, 간단한 게임으로 이해도를 높이는 워크숍이라니, 색다르다는 범위를 넘어 내겐 또 다른 지적 충격이었다. 더불어 나를 좀 더 갈고 닦아야겠다는 욕심도 커져서 태풍센터에 처음 들어왔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다. IWC는 4년 뒤 멕시코에서 다시 개최된다. 그때쯤이면 난 얼마나 성장해있을까? 즐거운 상상 위로 차곡차곡 초석을 쌓아본다. 🌩

새(新) 동지에서의 지저귀

2015년 기상청 직제 개편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막연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 또한 공존한다. 기상청은 2015년 1월 22일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보다 효율적이고 가치있는 기상서비스 생산을 위해 시행된 '직제 개편'으로 여러 과들이 새로 생기거나 합쳐지는 등 외양뿐만 아니라 그 역할도 달라졌다.

내가 속했던 원주기상대도 인사이동이 생기게 되었고, 나는 첫 직장이었던 원주기상대에서 강원지방기상청으로 일터를 옮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다시 거주지와 직장을 옮겨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누가 그랬던가? 익숙함에 취하면 도태되고,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이란 없을 것이라고, 더 큰 곳에서 많은 사람과 지내며 인맥을 넓히고, 많이 듣고 배우는 것은 미래에 큰 재산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기뻐해야 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두려움 반, 설렘 반의 마음가짐으로 작은 동지에서 큰 동지로 옮기게 되었다.



박선영
강원청 관측예보과

1월 21일 강릉 도착, 강릉에 도착한 나는 낯선 환경이 주는 기분 좋은 두근거림과 함께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아름다운 경포호와 해변은 앞으로 함께할 새로운 곳에서의 시간이 나에게 즐거운 추억이 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고, 마치 여행길과도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해안로의 출퇴근길은 여유와 생기가 넘칠 것 같았다. 바다를 끼고 드라이브하듯 출근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강릉과의 첫 대면은 그렇게 기분 좋게 시작되었다.



1월 22일 첫 출근, 새로운 곳에서의 근무가 시작되었다. 기상청은 기상대와는 많이 달랐다. 우선 건물의 규모가 크고 기상대보다 많은 인원과 업무들이 상당히 세분화·전문화 되어있었고, 각자 맡은 업무들을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일하고 있었다. 나처럼 이곳으로 새로이 옮겨 온 직원들은 빠른 적응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워낙 큰 규모의 인사이동과 업무의 변화가 있었던 터라 일을 잘해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에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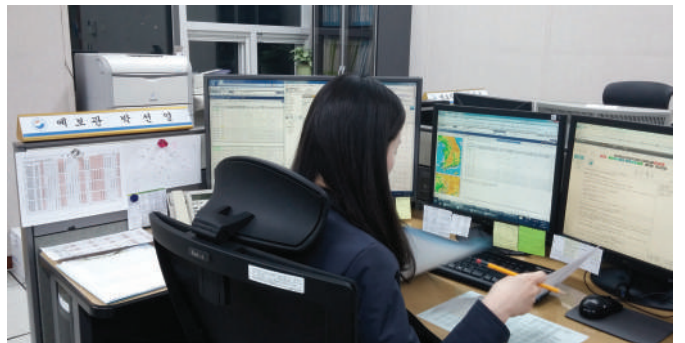
이러한 나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바쁜 와중에도 강원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셨고, 덕분에 긴장으로 인해 뻗뻗했던 내 얼굴도 차츰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새 업무를 배우고 실행해 나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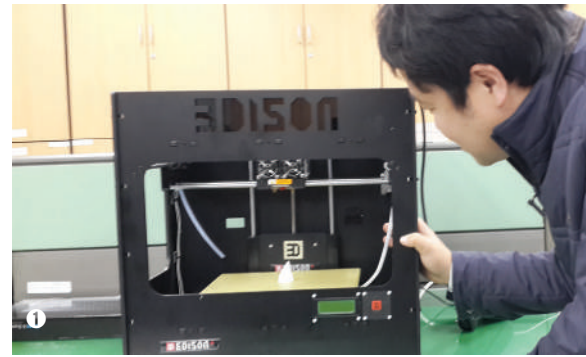
자리를 옮긴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맡게 된 일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예보와 관측을 병행하였다면, 지금은 관측자가 관측 업무를, 예보자는 예보 업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가장 좋은 것은 경험 많은 선배님들과 같이 근무하게 된 점이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물어볼 수 있고, 책에서는 얻을 수 없는 많은 노하우와 지식들을 습득해가며 서로 상의하고 또 조언을 들으면서 예보를 내는 등 혼자 근무하면서는 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얼굴을 직접 맞대며 시간을 함께하는 것은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색다르고 소중한 경험이 되어가고 있다.



아직 새로운 동지에서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는 꽤 이곳에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 업무 중에도 미소를 머금으며 일할 만큼, 강원청 직원들과 우리 예보팀은 나로 하여금 참 일할 맛 나게 해주신다. 혼자서는 푸드덕거리며 제자리 뛰기 밖에 할 수 없었던 아기 새가 더 크고 따뜻한 동지에서 크고 멋진 날개짓을 배워 파란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



3D 프린터와 함께 무한상상 도전!



3D

3D 프린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3D 프린터'는 사물의 3차원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당 사물과 동일한 모양의 사물을 입체적으로 출력해주는 프린터를 말한다. 1984년 미국 발명가 찰스 헐(Charles W. Hull)이 최초로 발명했고 '3D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1987년에 3D 프린터 상용화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3D 프린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중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3D 프린터 가까워지다

아직은 3D 프린터를 직접 사용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역별 '무한상상실'을 갖춰놓고 학교, 연구소, 지자체를 중심으로 3D 프린터 보급 및 체험 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큰 아이가 IT분야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에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 구글글래스 얼리어답터로 활약하기도 하고, 각종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얼리어답터로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3D 프린터에 관심을 갖고 출력물을 판매하기도 한다. 덕분에 3D 프린터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서 '2014년 ACE Fair(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 in Gwangju)'가 개최되었다. 전 세계 40개국에서 문화 콘텐츠 관련기업 424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4일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이 행사에서 3D 프린터 체험행사가 많이 마련되어 있어, 행사 전부터 꼭 참가하기 위해 마음을 먹었다.

행사장에서는 컴퓨터 3차원 디자인 도면을 바탕으로 초콜릿을 이용한 스케치, 호신용 호루라기 만들기, 3D 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3D 프린터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출력물의 생성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고, 4시간 동안 기초적인 교육도 받았다. 3D 프린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김병춘
광주지방기상청
관측예보과




① 3D 프린터와 출력물 모습 ② 3D프린터 체험현장 ③ 2014 ACE Fair



3D 프린터, 기상업무 활용을 위한 첫걸음

그렇다면, 기상업무에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3D 프린터 활용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에게 기상업무 전반을 설명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3D 프린터를 통해 무한 상상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나의 상상과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처음 상상한 것은 국지 지형도였다. 물론 이런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사양의 3D 프린터가 필요하지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드디어 3D 프린터를 우리 과에서 구매하게 되었다. 한동안은 귀한 몸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레 쳐다만 볼 정도로 감격스러웠다. 그리고 첫 작품을 출력한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모든 직원이 숨죽이며 출력물을 바라보았다.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었다. 모두들 출력물을 확인하고서 자신의 상상을 실현해줄 물건이라고 극찬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상상을 머릿속으로만 가지고만 있으면 가치가 없겠지만,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면 아름답고 멋진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3D 프린터는 앞으로 ICT 융·복합 기술, 인터넷 비즈니스 등이 연계되어 3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도 그때를 미리 대비해 3D 프린터와 친밀해질 필요가 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여기는 신바람 나는 속초! 속초기상대 '신바람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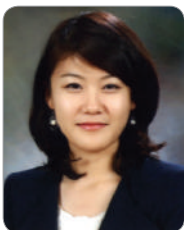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내게 속초는 생소한 곳이었다. 속초기상대로 첫 발령을 받고 얼마나 얼떨떨하던지. 모든 게 물음표 투성이었다. 그러나 속초로 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다른 지역에서 놀러 온 친구들에게 '완전 속초사람 다 되었네~'라는 말을 듣곤 한다. 속초의 많은 것을 보고 즐길 수 있게 해준 '신바람 프로그램' 덕분이다.



울산바위 에피소드

기상대에서 매시간 관측을 위해 노장에 나가면 멋진 동해와 설악산 울산바위가 한눈에 보인다. 속초로 발령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임님께서 "송이씨 울산바위 멋지지?" 하시기에 "그게 뭐예요?"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맨날 시정 관측한다고 보고 있는 저게 울산바위야~ 그 유명한 걸 몰랐어?"라 하셨다. 그때 나는 울산바위조차 모를 정도였다.

울산바위에 관한 전설이 하나 있는데, '조물주가 으뜸가는 경승을 만든다고 하여 온 산의 봉우리들을 금강산으로 불러들였다. 둘레가 4km쯤 되는 울산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커다란 바위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갔으나 덩치가 크고 몸이 무거워 지각하는 바람에 금강산에 들지 못했다. 그 바위는 그대로 고향에 돌아가면 체면이 구겨질 것을 걱정해 돌아가지 못하고 정착할 곳을 물색하다 아름다운 설악산을 발견하고 눌러앉아 울산바위가 되었다'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는 것도 후에 알게 되었다.



이송이
강원청 기후과(전 속초기상대)

산·물·맛 따라 신바람 나는 속초

이렇게 울산바위도 몰랐던 내가 속초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은 속초기상대에서 2012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바람 프로그램'의 역할이 컸다. '신바람 프로그램'은 직원들 간 소통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목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산·물·맛 따라', '건강만사성 프로젝트', '마루왕 선발'로 구성되어 있다.



'산·물·맛 따라'를 통해 매달 기상대 전 직원들은 우리 지역의 영랑호, 설악산과 같이 많이 알려진 관광명소는 물론 고성 화암사 앞에 있는 수바위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를 찾아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재미는 가자미식해, 가리 국밥 등 처음 먹어보는 토속음식을 맛보는 순간이다. 그리고 속초 토박이인 직원의 소싯적 에피소드를 곁들이면 최고의 관광프로그램이 따로 없다.

별미 중의 별미! 양미리와 도루묵

'산·물·맛 따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겨울철 양미리와 도루묵이다. 양미리란 이름은 생소할 것인데, 이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까나리이다. 서해안에서는 봄철 어린 까나리를 잡아 젓갈을 담그고, 동해안에서는 산란기에 있는 큰 까나리를 잡아 구워 먹는다. 또, 도루묵의 이름을 듣고 '말짱 도루묵'이 생각날 것이다. 도루묵은 조선시대 선조가 임진왜란 때 피난길에 '묵'이라는 생선을 먹었는데 그 맛이 뛰어나 '은어'라 부르라 하였다. 하지만 임진왜

란이 끝나고 썰로 돌아가 은어를 먹었지만, 예전 그 맛이 나지 않아 선조가 '도로 묵'이라 부르라 하여 지금의 '도루묵'이 되었다. 겨울철 양미리와 도루묵의 산란기가 겹치고 잡는 법도 비슷하여 겨우내 속초항으로 들어오는 작은 어선들은 대부분 양미리나 도루묵이 가득 실린 어선이다. 양미리구이는 비리지 않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고, 찌개로 먹은 도루묵은 칼칼한 국물과 가득 찬 알이 툭툭 터지면서 속초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다. 겨울에 속초를 놀러 온다면 꼭 먹어보길 추천한다.

만족도 100% 신바람 프로그램

'신바람 프로그램'으로 속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되어 업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도 챙길 수 있었다. 또한, 기상대 직원들 간에도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신바람 프로그램' 계획은 더 참신하고 직원들 간 소통 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만족도 100%로 속초를 더욱 즐길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특별한 인연의 섬,

제주도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새들을 철새라고 한다. 특히, 가을에 따뜻한 지역으로 찾아와서 겨울을 나고, 봄이 오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새들을 겨울 철새라고 부른다.

지난 1월 22일, 기상청 조직개편에 따라 대단위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이에 많은 직원들이 전 근무지를 떠나 새 근무지로 철새처럼 이동했다. 나도 2년 6개월 동안의 통영기상대 근무를 마치고, 바다 건너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도시, 제주지방기상청 기후과에 새 둥지를 틀었다.



제주지방기상청 발령, 새로운 시작

제주도와 나는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먼저, 결혼 후 첫 여름휴가와 1주년 기념여행을 제주도에서 보냈었고, 결혼 1주년 기념여행 때는 산굼부리에서 가을 역사를 만끽하던 중, 제주SBS(JIBS)방송국 뉴스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메인 뉴스를 장식하기도 했다. 또한, 부산지방기상청 우수멘토-멘티 정책탐방으로 제주도를 업무적으로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서 인연이 깊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오면 올수록 아름다운 제주도가 참 좋았다. 그러던 중 제주지방기상청으로 발령을 받았다. 다른 곳이 아닌 제주도라서 생활근거지를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보다는 새로운 곳에서 일하게 됐다는 설렘이 더 크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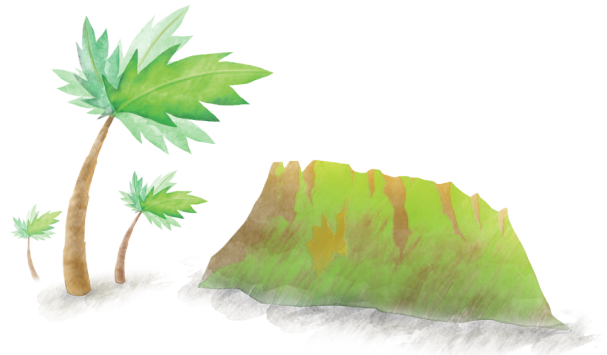


오래전부터 시작된 제주도와의 특별한 인연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제주도와의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친정엄마의 고향이 바로 제주도이기 때문이다. 외가 식구들이 제주에 터를 잡게 된 사연 또한 재미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충북 영동에서 한창 연애 중이실 때, 할아버지는 처가식구들의 극심한 결혼 반대에 부딪혔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제주도로 매우 파격적이고 로맨틱한 야반도주를 감행하셨다. 그 이후, 할아버지는 제주도의 정기를 듬뿍 받으셔서 총 7남매를 다복하게 두었다. 그리고 늦었지만 두 분의 결혼을 인정받기 위해 7남매를 안고, 업고, 손잡고 처가댁을 찾아뵙고 허락을 받으셨다고 한다. 마치 동화 "선녀와 나무꾼"같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사랑이야기다.



서민아
제주청 기후과



엄마의 제주도와 나의 제주도

이러한 이유로 엄마는 유년시절 대부분을 제주도에서 생활하셨다. 가끔씩 그당시 제주도의 추억을 말씀하시던 엄마는 이번 나의 제주 인사발령을 가장 반기셨던 분이 아닐까 싶다. 예전부터 제주 올레길을 전부 걷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이다. 제주 인사발령 소식을 엄마에게 전해드리고 나서, 나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현 제주지방기상청 관사 소재지인 사라봉 부근이 엄마가 어렸을 적에 사셨던 동네며, 청사로 출퇴근하면서 매일 지나가는 '제주동 초등학교'가 엄마의 모교였던 것이다. 지난 주말, 이제 성인이 된 내가 엄마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모교를 방문하여 운동장 한 편에 앉으니, 왠지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찡해졌다. 엄마의 어린 시절 추억을 내가 함께 하고 있구나, 앞으로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동안, 엄마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많이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오래된 인연의 끈으로 제주도에서 근무하게 된 것 같다.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신비의 보물섬 제주! 앞으로 더욱 특별한 인연을 쌓아가길 기대해본다. 🌸



엄마모교 방문 ▶
뉴스 인터뷰 ▶



JIBS
NEWS

이정훈 · 서민아 경남 통영시
제주우수제품 전시판매장 면세점 입점 추진

동화 같았던 가평 여행기



마감은 다가오고 원고는 안 써지고, 말 그대로 나는 딱 죽을 맛이였다. 그렇게 몇 달째 마감에 시달리던 나에게, 어느 날 마음의 목소리가 말을 걸어왔다. “야 이 녀석아, 넌 너란 사람을 28년이나 겪고도 모르겠니? 망했어, 망했다고. 어차피 망한 거 기분전환 삼아 확 여행이나 가버려!” 그 뽀뽀한 목소리는 마법의 동아줄처럼 나를 꼼짝 못하게 묶더니 획 가평으로 끌고 가버렸다.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은 10만 평 넓이의 거대한 정원이다. 한국 정원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지닌 수목원인데, 그래서인지 구성에 꽤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나무들의 거리나 주변 색감, 풍경과 잘 어울리도록 배치된 식물들이 그렇다. 만약 그 풍경이 궁극하다 하는 분은 반드시 겨울이 아닌 계절에 가시길 바란다. 겨울엔 꽃이 피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마감에 시달리던 작가는 까맣게 잊고 방문했으니 노파심에 말씀드린다.

그렇다고 겨울에 아침고요수목원을 가지 않을 이유는 없다. 반짝이는 수만 개의 오색 전구들이 색다른 겨울 풍경을 선사할 테니 말이다. 그 이름하여 오색별빛정원전! 아침고요수목원이 야심 차게 진행하고 있는 겨울 축제다. ‘사랑’을 테마로 꾸며진 이번 오색별빛정원전은 고향집정원, 분재정원, 하늘길, 하경정원, 달빛정원 등 다양한 구역을 만들어 놓았다. 구역마다 전부 다른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도 좋았다. 사랑이라는 테마에 걸맞게 정원 곳곳엔 하트 모양의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어 사진을 찍는 연인들이 많았다. 그리고 어딜 가도 한 번쯤은 만날 수 있는 고등학교 남학생네, 다섯 명의 눈물겨운 하트 포즈도 목격할 수 있었다.



조희애
동화작가



어렸을 때 본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영향인지 아침고요수목원의 환상적인 풍경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떠올리게 했다. 바쁘다며 걸음을 재촉하는 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로 뚝 떨어지는 순간이나 이 정원 어딘가에서 홍학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을 여왕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는 열심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사진으로 그 감동을 전부 담아 낼 수 없음이 아쉽다. 사람의 눈만큼 좋은 카메라는 없으니 관심이 있다면 직접 눈으로 보시길 추천한다.

다음 날은 아침고요수목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쁘띠프랑스'를 찾았다. 블로그에서 본 후기도 있고, 전날 밤의 환상적인 감상도 아직 기분에 남았고 하여 나름대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이 뷔띠프랑스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뷔띠프랑스가 아니었다. 작더라도 속이 알찬 제대로 된 건물을 기대했건만 흥내만 낸 세트장인 데다 썰렁했고, 전시되어 있는 소품은 그대로 방치돼 몹시 낡아 있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베토벤 바이러스>를 촬영했던 곳이라며 좋아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그래도 위로 삼을 것을 찾아보자면 사진이 그럴듯하게 잘 나온다는 것과, 높은 건물에서 바라보는 청평호수의 고즈넉한 풍경이 좋았다는 것 정도다.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왁자지껄 생기 넘치는 여름의 모습과는 또 다른 풍경이었을 테지.

오후 중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밤이 될 때까지 잠이 깊게 들었다. 어떤 꿈을 격하게 꾸는 것도 같지만,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다. 다만 그러는 동안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모양인지 한밤중에 눈을 떠 책상 앞에 앉았을 땐 아무리 머리를 잡아도 풀리지 않던 글이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앨리스의 도움일까, 가평의 기적일까. 그것도 아니면 남학생들이 만든 러브러브 하트 에너지? 어쨌거나 덕분에 나는 무사히 원고를 넘겼다. 그리고 이젠 다른 원고 마감에 시달리고 있다. ■

겨울철 심혈관질환 관리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체온이 떨어지면 교감 신경이 항진되어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고, 수축된 혈관은 혈압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겨울철에 고혈압 환자 발생이 늘고, 평소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고혈압 환자들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겨울철 혈압 상승의 위험성

겨울철에는 혈압이 평소보다 20mmHg 정도 상승하고,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도 20% 정도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뇌출혈이 발생하여 갑자기 쓰러질 수 있다. 또한, 겨울철 추위 노출로 인한 혈압 및 심박동수의 상승은 심장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협심증이나 심부전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특히 겨울철 혈압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

겨울철 혈압관리 방법

평소 혈압이 높거나, 협심증이나 심부전 등의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추운 겨울철 바깥출입을 할 때는 방한용품으로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여 찬바람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몸을 잘 닦고 머리를 잘 말려야 한다.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추위 노출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온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될 수 있으면 기온 차가 큰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외출을 가급적 삼가고, 필요하다면 비교적 포근한 낮에 외출하는 것이 좋다. 추운 날씨에 무리해서 밖에서 운동하는 것 보다는 가벼운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집안으로 들어올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온도 상승으로 혈관이 확장되면서 안면 홍조가 발생하고, 저혈압으로 인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 겨울철에도 저염식, 금연, 절주, 적절한 운동 및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건강한 심혈관 생활 요법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심혈관 약물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약 복용을 거르거나 임의로 약물 변경이나 중단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혈압 조절이 지속적으로 불량하거나, 흉통, 호흡곤란, 사지 근력 및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김학령 교수
보라매병원 순환기내과

눈이 녹아서 비가 되는

우수(雨水)

24절기 중 2번째 절기. 입춘(立春)과 경칩(驚蟄) 사이에 들며, 양력 2월 19일경에 해당된다. 눈이 비로 바뀌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뜻으로, 날씨가 많이 풀려 봄기운이 돈다. 이때는 태양의 황경이 330도의 위치에 올 때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을 맞는 절기다.



“온 나라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과 동면하던 개구리가 놀라서 깬다는 경칩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 우수(雨水)는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뜻을 지닌 절기이다. 보통 양력 2월 19일이나 20일이 우수일이다.

이런 내용은 서도민요 '수심가(愁心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이 풀리더니 정든 님 말씀에 요 내속 풀리누나."로 노래된다. 이는 우리나라 북쪽인 대동강에도 봄이 찾아왔으니, 온 나라에 봄기운이 완연하다는 뜻이다.

“우수 뒤에 얼음같이”

음력으로는 대개 정월에 들며 우수라는 말은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말이니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이른바 봄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슬슬 녹아 없어짐을 이르는 뜻으로 우수의 성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

이 무렵에 꽃샘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지만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수와 경칩을 지나면 아무리 춥던 날씨도 누그러져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튼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우수 입기일 이후 15일씩 세분하여 그 특징을 나타내었다. 즉, 첫 5일간은 수달(水獺)이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놓고, 다음 5일간은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며, 마지막 5일간은 초목에 싹이 트다고 하였다. 우수 무렵이 되면 그동안 얼었던 강이 풀리므로 수달은 때를 놓칠세라 물 위로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먹이를 마련한다. 원래 추운 지방의 새인 기러기는 봄기운을 피하여 다시 추운 북쪽으로 날아간다. 그렇게 되면 봄은 어느새 완연하여 마지막 5일간에는 풀과 나무에 싹이 튼다. [1]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해류를 타고 온 겨울꽃 수선화!



이번 겨울은 12월 초부터 한파가 몰려왔다. 찬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는 가운데 한기가 정체하면서 강추위와 함께 잦은 눈이 내렸다. 하지만 한반도의 남단, 제주도는 기상학적으로 하루 평균 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가는 날은 며칠 안 된다.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이나 섬 지방은 기후 특성상 한겨울도 대부분이 영상의 날씨다. 그러나 강한 해풍으로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인 날이 많다.

강한 북서풍에 일렁이는 겨울 바다. 이 무렵이면 세찬 바람에 날린 포말(泡沫)이 얼어붙는 제주도 해안가에 피어나는 겨울꽃이 있다.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무리 지어 피어나는 제주도의 수선화(水仙花)다. 수선화는 제주도와 남해의 거문도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선화는 늦가을이면 잎이 자라기 시작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해안가 곳곳에 연노랑 꽃을 피운다.

눈 속에 핀다고 해서 설중화(雪中花), 수선(水仙)으로도 불리는 수선화는 따뜻한 지중해가 고향이다. 부추같이 길쭉하고 두툼한 잎에 일자로 매끈하게 뻗은 꽃대, 그 끝에 네댓 송이 꽃봉오리가 달린다. 수선화는 겨울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속의 비늘줄기로 번식을 대신한다. 하지만 매개체를 유혹하던 유전자 때문인지 향기는 풍란만큼 아득할 정도로 짙다.

제주도와 거문도에서 자생하는 수선화는 서로 다른 종류다. 먼저 제주도에선 사투리로 '마농'이라 불리는 야생 수선화가 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말이 먹는 마늘'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속뜻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늘'이다. 발작물이 중요했던 그 옛날에는 생명력이 끈질긴 수선화가 천덕꾸러기 잡초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마농'은 흰 꽃잎 가운데 여러 개의 노랑과 흰색의 오글오글한 작은 꽃잎이 섞여 있다. 한겨울이지만 제주도의 돌담길이나 해안가에 제멋대로 피어나는 수선화, 마농을 볼 수 있는 시기이다. 거문도의 수선화는 금잔옥대(金盞玉臺)로 불리는 세련되고 화려해 보이는 수선화다. 꽃의 모양이 마치 백옥(白玉)으로 만든 받침에 금잔이 놓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김철수 숲해설가
전 KBS기상전문PD



수선화 마농



수선화 금잔옥대



손바닥선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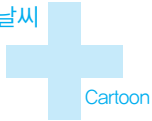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 수선화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다. 지중해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식물학자들은 사람이 아닌 바닷물에 흘러온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북쪽으로 이동하는 쿠로시오 해류(海流)에서 지류(支流)인 서해해류를 타고 제주도 남쪽 해안에 도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지류인 쓰시마해류를 타고 북동진한 수선화는 동해와 맞닿아 있는 일본 혼슈 후쿠이현에 일본 최대의 수선화 군락지를 만들었다. 이 같은 분석은 일본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수선화의 구근(球根)은 바닷물에 오랜 기간 잠겨 있어도 싹을 틔우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야자수나 코코넛은 해류를 이용해 멀리까지 열매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진 열대 식물이다. 제주도 해안에는 오랜 항해 끝에 정착한 식물군들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월령리에는 '손바닥 선인장'으로 불리는 국내유일의 선인장 자생군락지를 볼 수 있는데, 멕시코가 원산지인 선인장이 북적도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쿠로시오 난류(暖流)에 실려 제주도해안에 자리 잡은 것이다. 또, 제주도 토끼섬(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에 무더기로 자생하는 수선화과의 문주란(文珠蘭)도 먼 옛날 남쪽 바다에서 밀려온 작은 씨앗 한 톨이 싹을 틔우면서 시작되었다.

제주시는 얼마 전까지도 수선화를 시화(市花)로 정했었다. 제주도의 수선화는 모진 바닷바람에 아랑곳하지 않고 돌담 사이에 흙 한 줌만 있으면 뿌리를 내린다. 엄동설한에도 온 힘을 다하여 꽃을 피우는 제주도 해안의 수선화는 진정한 한반도의 봄의 전령사(傳令使)이다. ❀





몽게몽게 구름씨
“좋은 건 나눠요”
 글 그림 이동건

우리 구름이 많이 달라졌지

정말?

얼마 전만 해도 일기예보 확인도 안 하고 다녀서 장마철엔 우산만 수십 개였는데

앗! 비!!

지금은 동네 날씨는 물론 꽃가루농도위험지수에

기상청

비가 올 것 같으면 레이더 영상도 확인할 정도니까

어디보자~

게다가 주변에 이런 기상정보와 팁을 전파한다는 점에서

너희 동네 날씨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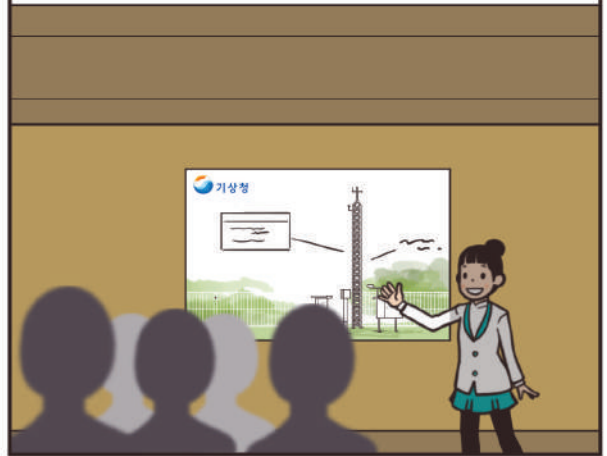
우리나라 기상청과 닮아있지 하하 어떤 점에서 닮았냐고?

구름이 =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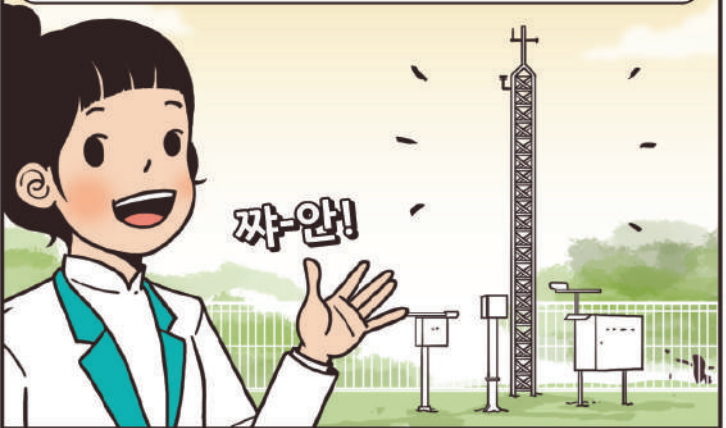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처음엔 기상 수혜국이었다가
지금은 공여국으로 발전했잖아



개발도상국에 기술이나 교육을
지원하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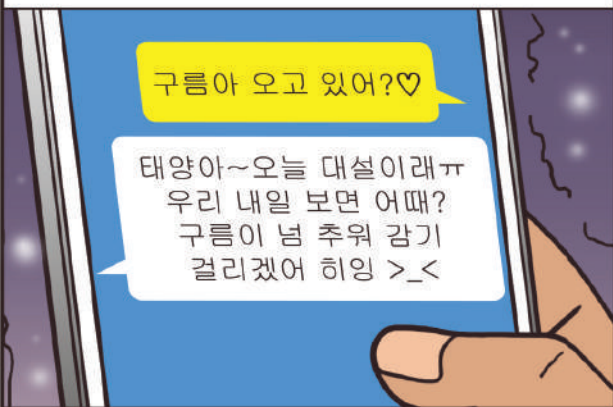
최근에는 베트남에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래



덕분에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여
주민 피해가 줄어들겠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과 정보를
주변에 나눠준다는 점이 어쩐지
답지 않았어? 다만 다른 점이라면....



구름이 넌 꼭 한 박자 늦다는 점이지...



1 January 주요 기상정보 및 이슈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새해 첫날, 동장군 기승 • 서해안, 제주 많은 눈 내려	2		3 한강 첫 결빙 영동지역 겨울 가뭄 • 41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
4 전국 눈, 비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5	6 소한	7 영서 내륙 산간에 7cm 눈	8	9	10 (11,20)
11	12	13	14 대구,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15	16	17
18 강원 화천 17cm 눈 내리	19	20 (12.1) 대한	21 영동산간 15cm 폭설 • 최악의 겨울 가뭄 일부 해갈	22 제주도 우박 • 일부지역 1cm정도 우박 쏟아져	23	24 미세먼지, 안개 주의보
25	26	27	28	29 (12,10)	30	31 경북 영덕군 지진 • 북북동쪽 해역에서 진도 2.2 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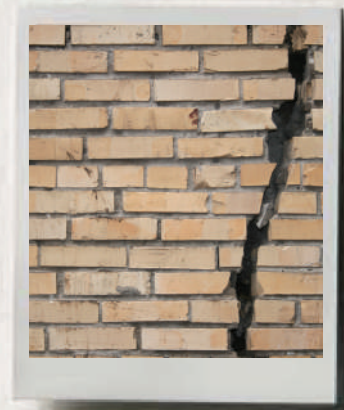
평년보다
따뜻했던
1월!

- 기온** 2015년 1월 평균기온은 0.5℃로 평년(-1.0℃)보다 높았음(평년대비 +1.5℃)
 - 전반에는 대륙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의 변동 폭이 매우 컸음
 -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평년보다 약한 가운데 이동성 고기압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었음
 - ※ 1973년 이후 1월 평균기온이 전년도 12월보다 높았던 해: 1988/1989년, 2001/2002년, 2005/2006년
- 강수량** 동해안 지방 적은 강수량
 -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렸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음
 -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눈 또는 비가 내린 때도 있었으나, 강수량이 평년대비 50% 미만으로 적은 곳이 있었음
 - ※ 1월 강수량 평년대비 50% 미만인 지점: 속초 19%, 영덕 27%, 강릉 37%

2 February

국내·외 기상기록

- 2.1 미국 텍사스·시카고·뉴욕 등 12개 주 폭설(2011년)
: 60cm 이상의 폭설로 12명 사망
- 2.3. 파키스탄 북서부 및 중부 지역 폭우(2013년)
: 34명 사망, 58명 부상, 3명 실종
- 2.3 영동산간 폭설(1987년)
: 영동고속도로 마비, 최심신적설 대관령 90.3cm
- 2.4 과테말라 지진(1976년)
: 규모 7.5 강진 발생, 2만 3천여 명 사망·실종
- 2.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남쪽 지역 홍수(2011년)
: 5명 사망, 4만여 명 이재민 발생
- 2.8 일본 45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2014년)
: 나가노현 40cm 기록, 605명 사상자 발생
- 2.10 미국 동북부 눈 폭풍(2010년)
: 워싱턴 142cm, 볼티모어 184cm 적설 기록
- 2.12 울릉도 기록적인 폭설(1967년)
: 최심신적설 울릉도 116.4cm
- 2.14 강릉 103년 만의 최장기 적설 기록(2014년)
: 9일, 최심적설 110cm 기록
- 2.20 일본 폭설(2012년)
: 103명 사망, 663명 중상
- 2.21 전국 기록적인 겨울비(2004년)
: 서울 52.5mm, 마산 96.5mm, 남해 90.0mm
- 2.24 중국 신장 지진(2003년)
: 규모 6.8, 260여 명 사망, 4,000여 명 부상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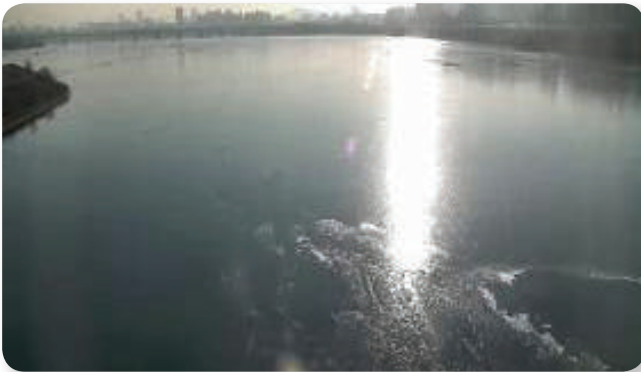
2015년도 시무식(1.2)

기상청은 2015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새해 업무를 함께 시작하는 시무식을 열었다. 우수공무원과 모범공무원 등 포상과 함께 직원 간 새해 인사를 나누는 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제 95차 미국기상학회 및 세계기상청장회의 참석(1.3)

기상청은 미국 피닉스에서 열리는 미국기상학회 및 세계기상청장회의 참석했다. 이번 학회를 통해 선진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기상위성 관련 선진 기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올 겨울 한강 첫 결빙(1.3)

1월 3일 아침, 한강이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결빙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5일 늦었지만, 평년보다는 10일 빠르게 관측되었다.



기상청장, 국립현충원 참배(1.5)

고윤화 기상청장과 간부들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였다.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현충탑에서 분향·묵념한 후, 2015년 기상청 정책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Photo News

Photo News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2015년도 신년인사회 개최(1.14)

새해를 맞이 기상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신년인사회'가 개최되었다. 전직 기상인, 기상학회, 기상사업자, 공군 등 유관기관과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15년 기상정책을 공유하고, 신년덕담을 나누는 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기상청 조직개편, 임명장 수여식(1.22)

기상청은 예보정확도 향상, 기상정보 가치 제고를 위한 전문성 높은 조직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1월 22일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제32회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개최(1.26)

기상청은 기상기후사진 공모를 시작했다. 2월 28일까지 기상·기후 변화·기상재해 현상과 날씨 예측을 위한 인간의 노력을 담은 모든 사진작품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기상콜센터 131day 7주년 기념행사(1.29)

정부과천청사에서 131day 7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우수상당사 시상, 프로모션 포상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Photo News

독자 마당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2월 25일까지 전자메일(kmanews@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QUIZ

- 제주도에 피는 야생 수선화로 '말이 먹는 마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속뜻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마늘'이라는 뜻을 가진 수선화의 이름은?
① 금잔옥대 ② 옥잔화 ③ 마늘 ④ 무수
- 사물의 3차원 설계를 바탕으로 해당 사물과 동일한 모양의 사물을 입체적으로 출력해주는 장치의 이름은?
① 3D 디바이스 ② 3D 프린터 ③ 3D 웨어러블 ④ 3D 노트

지난 달 퀴즈 정답

- ① 국립대구기상과학관
- ③ 20cm

지난 달 퀴즈 정답자

권아름(부산), 김지선(영광), 박정은(홍성),
심재호(울산), 이점순(정선)

인사발령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1.22	예보국	국 장	양진관	
		관측기반국	지진화산관리관	관 리 관	임병숙
		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연구부	부 장	박관영
		수도권기상청		청 장	남재철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센 터 장	김금란
		대전지방기상청		청 장	김진국
		국가기상위성센터		센 터 장	이미선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과 장	손승희
			연구개발담당관	과 장	전영신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과 장	나득균
			총괄예보관	과 장	김영하
		관측기반국	방재기상팀장	팀 장	정현숙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과 장	김남욱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장	과 장	김희경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기술융합팀	팀 장	오미림
			연구기획운영과	과 장	박철홍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	과 장	조진호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과 장	이중호
팀	과 장		이덕기		
황사연구과	과 장		류상범		
응용기상연구과	과 장		김백준		
수치모델개발과	과 장	김동준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1.22	국립기상과학원	수치자료응용과	과 장	주상원
			관측예보연구과	과 장	임은하
		수도권기상청	재해기상연구센터	센 터 장	최병철
			관측예보과	과 장	하창환
			기후과	과 장	박중서
		부산청	기후과	과 장	조진현
			창원기상대	대 장	김성현
		광주청	전주기상대	대 장	심재면
		대전청	청주기상대	대 장	김용상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	과 장	홍성대
		관측기반국	슈퍼컴퓨터운영과	과 장	김태희
			지진화산정책과	과 장	유용규
기상서비스진흥국	인력개발과	과 장	인희진		
강원청	춘천기상대	대 장	김규일		
제주청	기후과	과 장	최재천		
승진	1.22	예보국	총괄예보관	과 장	최주연
		부산청	안동기상대	대 장	박광호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실	기술서관	김정선
		예보국	예보정책과	서기관	권영근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기술서관	박규명
		지진화산감시과	기술서관	박종찬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가 달려갑니다

전국 140개소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대표전화
1544-1199

직업상담

- 개별·집단상담 (1:1 맞춤형 상담, 진로상담 등)
- 취업 정보제공
- 취업 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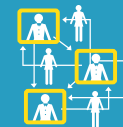
직업교육훈련

- 직업의식교육, 능력개발교육, 면접교육
- 기업위탁 새일역량교육



취업연계

- 구직·구인 연계
- 인턴십 지원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 면접동행



사후관리 서비스

- 상담, 멘토링 등 직장적응 및 경력개발지원
- 사업장 인식개선, 환경개선 지원



정부의 일·가정양립 정보를 한데 모아
'일·가정·특·특' 모바일 앱!



*출산휴가·출산장려금 정보, 아이돌봄 서비스·유아학비 지원 정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보 등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일·가정·특·특'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네이버, 애플 앱스토어, 티스토어에서 다운가능)



제 32 회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작품주제 사진, 날씨를 말하다
공모기간 2015.1.26[월] ~ 2.28[토] 24:00까지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2작품 이내]
공모내용 기상, 기후변화, 기상재해 현상과 날씨 예측을 위한 인간의 노력을 담은 사진

접수처 공모전 홈페이지 [<http://photo.kma.go.kr>]
입상발표 2015.3.13[금] 10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지
시상내용 상장 및 총 1,000만원 상당의 상금
문의사항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사무국 [0505-300-5117] 또는 홈페이지 [<http://photo.kma.go.kr>] 참조

※최종 입상된 50점의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저작권 일체 및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는 기상청에 귀속(저작권법 적용)됩니다.